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7-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광야와 같은 일상에서 매일 말씀이라는 만나를 먹어야 영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합니다. 말씀은 의무나 연구 대상이 아닌, 내게 주신 축복을 믿고 선포하기 위해 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성령)를 마실 때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삶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최근 내 삶에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
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
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
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Nourished for the Journey: Lessons from Exodus 12



Passage: Exodus 12: 7-10

Date: August 23, 2026

Pastor: Dong Suk Chung

When God instructed the Israelites in Egypt to apply the blood of a lamb on their doorposts, that blood was never meant for the people inside the house to see. It faced outward, for God alone to see and pass over in judgment. The people inside may well have been full of their own faults and anxious feelings, but God, seeing the blood from outside, declared the whole household righteous and His own people. In the same way, the atoning blood of Christ's cross is the absolute basis of our forgiveness, fully settled in God's sight regardless of our shifting human feelings or emotions. So many believers still search within themselves for proof that they are truly saved, waiting for some feeling to confirm what God has already declared true.

Yet those redeemed by the blood could not stay in Egypt. They had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press on toward the place of true worship. Pharaoh offered compromises to keep them in place, tied down by worldly comfort and possessions; Satan does the same with us today. The strength to actually break free came only from eating the lamb's meat, together with bitter herbs and bread made without yeast. Similarly, receiving the gospel is sweet, but living it out is often bitter to our old self, because it requires our self-centered desires to die so Christ can take the throne we've been occupying. Leaven represents not just sinful behaviors but the deeper sin of wanting to be our own master. Unleavened bread pictures the alternative: an exchange of masters, handing over the old self and fully receiving Christ as our Lord, every day: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Once delivered out of Egypt and baptized through the Red Sea, believers inevitably walk through the wilderness, depending on God daily for everything. There, God fed Israel with manna that appeared fresh each morning; anyone who tried to save extra for the next day found it rotten.

Manna today means a life continually supplied with the life of Christ through God's Word daily. There is no stockpiling grace. What sustained us yesterday won't sustain us today. If we think of reading Scripture as a burdensome obligation or

an object of academic study, it becomes a heavy weight that wears life down. But for a believer with His life in them, the Bible becomes sweet food that sustains them with life. His Word is meant to be eaten daily, the way the body needs food every day regardless of what it ate the day before. Just as manna rotted when hoarded, we must not be satisfied merely with a past experience of salvation or with doctrinal knowledge of Scripture.

We must cultivate the holy habit of gathering, each morning, through the Word and prayer, the fresh message of life that God gives that day. Without eating this spiritual food daily, one may still be saved yet remain weak and captive to the old self in daily reality, living a life of constant defeat and misery.

Many lifelong churchgoers only open their Bibles once a week. Yet none of us would call ourselves nourished from eating one meal a week, as we'd notice our bodies weakening immediately. We're slower to notice the same happening to our spirit. When faith feels hard, it's worth asking honestly whether we've simply stopped feeding it.

God gave one more provision in the wilderness besides bread: water from the struck rock. As the apostle Paul testified, this rock is Christ, his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and the water bursting forth from it symbolizes the Holy Spirit. Bread sustains, but water is essential, it's what no one can go without, even briefly. A person can survive a week without food, but not without water. If manna, corresponding to bread, sustains life and enables spiritual growth, then the living water of the Spirit allows that life to be richly enjoyed within our daily living and thoroughly satisfies the soul's deepest thirst.

None of this calls for reaching some elevated spiritual plateau. It's as ordinary and essential as a daily meal, waking each morning and choosing to gather what only God can provide that day. The question this week isn't whether we hold the correct beliefs about Jesus. It's whether we've actually eaten today, or whether we're living off some past encounter with Him. Gather His Word this morning. Surrender what still wants to rule your own life. Let the Spirit do what only He can do. When we are filled inwardly with the Word and the Spirit, and the Lord becomes the true master of our lives, we can overcome Satan's attacks and live a life of genuine peace and boldness, winning the victory day by day.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9월 6일 2026년

NASUNGCHURCH.ORG

123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출애굽기 12장 7-10절

날짜: 8월 23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0절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양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 전체의 비극이 시작되었듯,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는 영적 생사 및 삶의 질과 직결될 때 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재창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진리를 먹는 문제로 표현하신 까닭은, 구원이 한낱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자라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을 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상하거나 안심하라고 바른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을 넘여가기(유월) 위해 바른 것이었습니다. 정작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나 죄의식, 혹은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밖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이미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인간의 가변적인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온전히 만족하시는 절대적인 속죄의 근거가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주관적인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언을 그대

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종교적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진리의 선언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백성이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세상의 임금인 바로(사탄)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혹은 "아이들이나 재산과 가족은 두고 가라"고 유혹하며 세상의 정과 물질에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영적 침체를 뿌리치고 애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은 오직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이 양고기는 반드시 쓴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소화되고 실제화될 때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속에서 쓴맛을 냅니다. 즉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하신 말씀대로 내 자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경건의 훈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죄의 열매만을 뉘우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내가 주인 되었던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는 주인의 교체입니다.

구원받아 애굽을 탈출한 성도가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는 과거 애굽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인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 날의 만남은 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지키기 힘든 율법적 의무나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접하면 무거운 짐이 되어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하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말씀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내 것임을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 먹는 달콤한 양식이 됩니다. 나아가 만나는 내일을 위해 쌓아두면 썩어버렸듯이, 한 번의 과거 구원 체험이나 이성적인 성경 교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거두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구원은 얻었을지라도 현실의 육신에 잡혀 늘 패배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최종적인 완성은 터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했듯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기서 터져 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밥에

해당하는 만나가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면, 생수인 성령은 그 생명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광야와 같은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나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속을 채우고 주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 여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 9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13일 다음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 9월 7일은 Labor Day 입니다. 따라서 금주 화요일 (9/8) 교회 사무실을 close 합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장금숙 집사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 (6주 진단)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아영 사모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한나선교회)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추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폐암 수술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 진행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종철 장로
(모세선교회)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학철 목사님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